

사회

광주 어린이집 대부분 오후 6~7시면 ‘땡’

“직장인 엄마·아빠는 어찌라고...”

초과근무 수당 등 경비부담 때문... 대책 시급

출산 후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한 이선희(36)씨는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고민이다. 어린이집은 보육사업 규정에 따라 오전 7시30분~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운영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대다수가 이보다 빨리 문을 닫아 시간을 맞추기 힘든 탓이다. 이는 보육원들이 지난해 말부터 원아 모집난에 시달리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등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운영을 규정보다 1시간 정도 줄여 오후 6시~7시에 문을 닫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맞벌이부부들은 남편과 부인이 번갈아 조기 퇴근하며, 아이를 챙기는 등 ‘보육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모두 1천153개소. 5개 구청별로는 ▲동구 40곳 ▲서구 235곳 ▲남구 130곳 ▲북구 335곳 ▲광산구 413곳이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어린이집 종일반의 경우 근무일 퇴근시간보다 앞선 오후 5시30분에 어린이들을 돌려보낸다.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가기에 어려운 시간이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한 어린이집도 오후 6시30분이면 어린이들을 모두 돌려보낸다.

일부 어린이집들은 아직도 운영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 인건비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운영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가족이나 원생모집이 어려운데 요금을 올려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솔직히 일부 어린이 때문에 문 닫는 시간을 늦춘다면 불만과 손해는 모두 어린이집 몫”이라며 “부모님들의 사정만으론 무조건 시간을 늦출 수는 없으며, 추가 근무수당 등을 시정이나 구청이 지원해주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여·36)씨는 “오후 6시에 퇴근하더라도 차가 막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걸린다”며 “엄마들이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아이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녀를 둔 여성들이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 적어도 지체대로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운영 지침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찰, 목포대 압수수색

약대 신설 로비 비자금 의혹... 대학측 부인

경찰이 약학대학 신설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후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지역 대학을 상대로 조사가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약대 신설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대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비자금 관련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대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약대 신설대학 선별"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약학대학 신설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후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지역 대학을 상대로 조사가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약대 신설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대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비자금 관련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대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약대 신설대학 선별"이라고 말했다.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또 같은 시기 약대 신설 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로비가 이뤄졌는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 등 지역 대학의 약대 신설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통해 ‘뒷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목포대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며, 사실무근이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월 26일 약대 신설 및 정원 배정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19개 대학 중 목포대 등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우산 셋이 나란히

곡우(穀雨)를 하루 앞둔 19일 남도에 봄비가 내려 대지를 축축하게 적셨다. 이날 우산을 쓴 학생들이 광주시 북구 전남대 제1학생회관 앞 분수대 주변을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곡우에 단비... “풍년 들겠네”

곡우(穀雨)인 20일 광주·전남에는 모든 곡식을 윤택하게 하는 봄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 점차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우량은 5~30mm. 비는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3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포근하겠다.

한편 지난 14일 아이슬란드 남쪽 에이아프얄라요쿨 화산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산재는 23~27일 사이 한반도를 통과했으며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실혼 부부 강간 입건

20대 女 “남편에 성폭행 당했다” 신고

7년 동거·아들 2명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면서 두 명의 아들을 둔 20대 여성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남편을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7)씨가 발거중인 아내를 집에 데러오기 위해 광주시 북구 중흥동 아내의 임시 거처를 찾은 것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경. 당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살았던 아내 A(21)씨는 “집으로 돌아가자는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자 남편이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한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불러 조사

한 뒤 김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A씨의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7년간 함께 살며 아들도 둘이나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내를 살뜰히 집으로 데러오려고 찾아가 서로 합의 하에 부부관계를 가졌다. 문제될 게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상 처음 강간죄로 처벌 받은 임모(43·부천시 남구 우암동)씨가 지난해 1월 20일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검, ‘유형업소 뇌물’ 경찰관 구속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 철)는 19일 유형업소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던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모 유형업소 업주 주모(40)씨로부터 매회 10만~5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본보 4월 19일자 6면)

이 경위는 또 주씨가 지난 2008년 세검포탈 혐의로 구속되어 “사건을 봐주겠다”며 현금 1천200만원을 받은 뒤 주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경위는 “주씨와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로, 주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준 뒤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보도방 업주 김모(40)씨로부터 “이 경위 등 현직 경찰관 4명에게 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경위가 주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강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나머지 3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090) 김중두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

한나라 조전혁의원 홈페이지

전교조·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의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화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이 공개한 올레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을 보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천273명 등 모두 22만2천479명이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수 경찰

정직 3개월 중징계

광주북부경찰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북부경찰 소속 A경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해 11월 초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16)양과 성관계를 가진 후 전 남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 A경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화재현장 출동 소방차 물이 없어?

○나주에서 차량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

○19일 나주소방서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8일 새벽 0시37분께 나주시 금천면 남양유업 앞 도로에서 박모(36·나주시 청동)씨가 몰던 오토바이 승용차가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은 뒤 차량 화재가 발생.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나주소방서 급전지역대 소방차원 H(58)씨는 소방차에 부착된 레버를 힘껏 돌렸으나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이를 지켜보던 목격자들이 ‘물 없는 소방차’의 후속을 제기.

○더구나 H씨가 레버를 잡고 씨름하는 동안 차체 앞 부분에서 시작된 불이 차량 전체로 번지면서 운전자 박씨가 중태에 빠지는 등 초기 화재 진압 실패로 인한 책임론이 대두.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무안군, 20억 감리용역 특혜 의혹

과도한 단서조항 적용... 탈락업체 이의 제기 “문제 없다”

무안군이 하수관거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나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무안군은 탈락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외부인사 참여 없이 관련 실과 간부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업비 20억원 규모의 ‘무안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책임감리원이 단일권역인 하수관거분야 상주감리·공사감독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의 80% 적용’을 기존 적격심사기준에 단서조항

으로 붙였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없는 조항으로, 애초 7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참여업체 수는 3곳으로 줄었다.

무안군은 3곳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면서 낙찰이 유력시 됐던 업체의 책임감리원 경력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지정한 책임감리원의 관련 경력이 3년미만이라며 배점의 8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점수 차가 벌어져 탈락했다.

용역을 낙찰받은 업체는 무안지역

한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기초금액 6억여 원의 ‘무안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7억원여 원 규모의 ‘청계면·해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08년 7억원여 원 규모의 ‘무안군 청계·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잇따라 수주하기도 했다.

탈락업체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주감리·공사감독의 근무기간까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행정행위”라며 “또 책임감리원이 3년 이상 공사감독으로 근무했다는 경력확인원까지 첨부해 이의를 제기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자체적인 관련 실과 간부직원,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에는 없지만 발주처가 필요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책임감리원의 경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군청 내 전문가인 관련 실과 간부직원들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5분 / 해질 19시 09분 / 달돋이 10시 02분 / 달질 00시 05분

잔뜩 찜푸린 하늘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다.

구분	기온
광주	비온뒤 맑음 13/21℃
목포	흐림 13/18℃
여수	비온뒤 맑음 12/17℃
완도	비온뒤 맑음 12/18℃
구례	비온뒤 맑음 12/21℃
해남	비온뒤 맑음 12/19℃
장흥	비온뒤 맑음 11/19℃
고흥	비온뒤 맑음 12/19℃
순천	비온뒤 맑음 13/20℃
영광	흐림 12/19℃
진도	비온뒤 맑음 12/18℃
전주	흐림 12/21℃
남원	흐림 10/20℃
축산도	흐림 11/15℃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구분	기온	바다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중~남동 1.0~2.0m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중~남동 2.0~3.0m	보통 주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북동~동 0.5~1.5m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북동~동 1.0~2.0m	보통 주의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21(수)	흐림	13/18
22(목)	흐림	11/18
23(금)	맑음	8/19
24(토)	맑음	5/20
25(일)	맑음	5/21
26(월)	흐림	9/18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4·19 50주년 추모 묵념

유족, 기관 단체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시장의 의장 등이 기념식에서 4월혁명 희생자 영령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19혁명 50주년 기념식이 19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유가족 및 유족, 기관 단체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시장의 의장 등이 기념식에서 4월혁명 희생자 영령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PD수첩 “검사 항응 명단 폭로”

오늘 밤 방영

MBC ‘PD수첩’ 제작진은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항응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이 적힌 문건을 입수, 20일 밤 11시5분 관련 내용을 방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작진은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자 항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부 검사에게는 성상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받았다”며 “1984년부터 2009년까지 그가 항응을 제공한 검사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접대 날짜, 참석자가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자 항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부 검사에게는 성상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